

기고

### 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 청소년을 지키자

이 세 랑 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성인들의 범죄로 인식되었던 마약, 이제는 성인을 넘어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범죄가 침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 친구의 권유 등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학원가 일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집중력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 음료로 속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약에 노출된 경우도 있다.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마약,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청소년들은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온라인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약 정보도 마찬가지다. SNS에 마약 구입을 요청하면 마약을 제공하겠다는 쪽지가 바로 온다. 마약의 종류뿐 만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 마약에 대해 알고 싶지 않는 정보까지 자세히 알려 준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은 짧은 시간에 마약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마약에 중독된다.

둘째, 청소년 시기는 가정보다 또래집단에 많이 의지하게 된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또래집단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고 공유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또래집단에서 한 친구가 마약을 시작하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마약을 같이 하게 된다. 친구가 하는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에서 왕따, 소외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약을 시작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들은 연예인을 우상으로 생각한다. 미디어를 통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접하면서 연예인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까지 한다.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연예인의 마약범죄는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연예인 마약뉴스를 접하게 된 청소년들은 왜 연예인이 마약하게 되었는지, 마약이 무엇인지 검색해보면서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미성숙한 청소년 시기에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마약의 위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미로와 같다. 그렇다면 마약범죄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교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같이 마약범죄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무작정 '마약하지마, 마약하면 처벌받게 된다'라고 교육하기보다는 마약이란 무엇이고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마약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약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일상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약범죄를 했다고 청소년들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기회조차 뺏을 수는 없다. 마약범죄 청소년들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주변에 도움의 손을 요청하지만 아직 사회는 그리 따뜻하지는 않다. 이런 청소년들을 범죄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마약 속에서 구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및 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다시는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b>최정현</b> 편집국장 <b>직무대리 서선옥</b>	
<b>동부취재본부</b>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b>서울취재본부</b>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b>기사제보 (062) 222-2580</b>	<b>광고적용 (062) 228-2580</b>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칼럼

### 호국보훈의 달에 애국심을 기르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6월은 여름철로 들어가는 달이고 호국보훈의 달이며 6월 6일은 제68회 현충일이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6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 요인, 정당 대표 헌법기관장 주요 인사와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학생 등 10,000여 명 참석하여 거행한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공훈에 보답하자는 뜻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보는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기념일이다. 국립묘지에는 전국 각처에서 오신 유족들이 가신님의 묘를 참배하고 명복을 빈다. 현충일에 우리는 호국 영령의 묘 앞에서 호국 영령의 유업을 이어받아 기필코 이 땅에서 잔혹한 공산당을 물리치고 남북통일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한다.

현충일이 공휴일로 되었는데,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고, 이날만은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 위훈을 추모해야 한다.

현충일은 단순히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것보다 국민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국민 전체의 화합을 다지는 애국심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남북이 분단되었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1950년 6·25 전쟁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했으며 국토가 폐허가 되었지만, 6·25 전쟁은 종전 아닌 휴전상태로 올해 73주년을 맞이하도록 통일을 못 하고 긴장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침략자 북한 공산당들은 적화 통일전쟁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온 인류가 싫어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몰수했으며, 천안

함 피격의 만행을 저질러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정되었으나, 반성은 없고 남침을 하겠다고 으박지르고, 올해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긴장된 상황에서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한다.

우리는 휴전상태에서 전쟁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나, 우리는 슬기롭게 물리쳐 나라를 지켜왔으며, 그때마다 수많은 애국선열이 목숨을 바쳤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가와 북한 공산당의 만행을 전쟁 역사자료를 통해 새롭게 배우고 알려야 할 것이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얼마나 우리를 핍박했는가의 역사적 산 자료를 통해 공부하고, 일깨워 주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중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호국 영령들 은공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각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휴전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북한을 설득하여 평화적 남북통일을 하려고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도왔지만, 북한 공산집단은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천안함 사건에서 보여준 것이다. 전쟁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천안함 사건 같은 침략 행위를 언제 또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휴전상태에서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은 없어야 하고 전쟁을 없애려면 국민이 화합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언제든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반성하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국민이 화합하여 국력을 길러야 할 것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선열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후손으로서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

기고

### 이파인 문자서비스와 과태료 스미싱 문자를 구별하자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은 스미싱 문자에 표현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나라(www.boho.or.kr)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18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였다면 이동통신사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기능 차단 및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스미싱 피싱과 이파인 문자서비스를 구별하여 더 이상 피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김경철님, 과태료고지서가 우편발송 되었습니다(eFine사이트에서 확인, 이의신청가능)'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위 문자메시지는 이파인(eFine)서비스로 경찰청에서 교통범죄금 및 과태료를 당사자가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서,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발생 시 본인이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 범죄금 및 과태료 문자 서비스를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파인 서비스와 과태료 스미싱 문자 차이점은 이파인 서비스 문자 내용에는 인터넷 주소가 링크되어 있지 않으며 클릭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